

## Soohyun Jenna Kim (Buddy)

조안 정 언니는 저의 영어 선생님, 멘토, 그리고 친언니 같은 헬퍼입니다. 언니를 처음 만난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영어도 서툴고 모든것이 낯설어서 학교가는게 두렵고 싫었을 때 처음 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저를 위해 한국말로 먼저 말해주고, 영어로 다시 말해주면서 따라해보도록 했습니다. 몇 번이고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영어단어와 문장을 익히도록 도와주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도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영어선생님같이 도와준 헬퍼언니 덕분에 지금은 영어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또 언니는 나의 멘토입니다. 학교에서 나만 단어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속상해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언니가 저만 영어단어 쓰는게 어려운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친구들도 처음에는 다 어려운거라면서 언니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처음 학교갔을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영어가 어려웠는데 계속 친구들 말을 귀기울여듣고 단어도 어떻게 쓰는지 여러번 보면서 연습하니 익숙해지고 잘 할 수 있게되었다고 언니의 경험을 말해주면서 위로해주어서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언니랑 수업시작하기전에 일주일동안 재밌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축구경기에서 져서 속상하다고 얘기하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거라고 말해주면서 "Success is just around the corner"라는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경기에 져서 속상했던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언니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언니가 도와주어서 영어도 전보다 훨씬 잘하게되었고 학교 생활도 즐거워졌어요. 조안 언니는 저의 최고의 헬퍼입니다!